

# ‘카페24’ 코스닥 안착... ‘테슬라 상장’ 2호 기업은 어디

(수익보다 성장성 평가)

엔쓰리엔·쿠팡·스마트포캐스트 등 개인투자자 K-OTC에도 눈길 기대실적 선반영... 목표 넘어서

‘테슬라’ 1호 상장사 ‘카페24’가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들은 ‘제2의 카페24’를 찾아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기준 카페24의 주가는 9만 1200원으로 코스닥 상장 3주만에 공모가(5만7000원) 대비 60%나 올랐다. 해당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3.27%)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현재 카페24 시가총액은 8079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50위 기업이 됐다.

카페24는 적자를 내고 있어도 향후 성장성이 큰 기업에 코스닥 진입을 허용해 주는 제도인 ‘테슬라 요건’의 제1호 상장사다.

〈밸류에이션〉	
2018년 매출액 (억 원)	1,748
Target PSR (배)	4.6
적정 기업가치 (억 원)	7,955
총 발행주식수 (주)	8,863,869
적정 주당가치 (원)	89,751
목표주가 (원)	90,000
공모가 대비 상승여력	57.9%

실제 카페24는 지난 2016년까지 줄곧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하지만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카페24의 성장성을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했고, 테슬라 상장 1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됐다.

테슬라 요건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담도 카

페24는 비켜갔다. 풋백옵션이란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3개월 내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시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향후 2개월 동안 카페24의 주가가 43.7% 급락하지 않는 이상 풋백옵션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 카페24의 성공적 상장을 발판으로 증

권사들은 ‘제2의 카페24’를 찾아나서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빅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SW) 기업인 ‘엔쓰리엔(N3N)’이 꼽히고 있다. 이미 카페24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가 공동주관사로 나서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쿠팡’,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업체인 ‘스마트포캐스트’ 등이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카페24가 거래되던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덕분에 K-OTC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15조7189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50% 가까이 커졌다. 지난해 K-OTC 시장의 시가총액은 10조원대에 불과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약 4억원에서 28억원으로 7배 급등했다.

현재 K-OCT 내에서 개인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침대 매트리스 회사인 ‘지누스’다.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연내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최근 1년간 주가는 4배나 급등했다. 아울러 ‘YD생명과학’, ‘삼성메디슨’ 등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다만 카페24와 같이 상장 대박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카페24의 목표주가는 9만원이다. 하지만 현재 카페24의 주가는 올해 기대실적을 선(先)반영해 추정된 목표주가를 넘어선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상장제도가 활성화되고 좋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투자가 과열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공개매수가격 산정 시 공모 1개월 전 평균주가 대비 할증률 현황〉

할증률	최초공개매수		후속 공개매수		평균할증률
	빈도수	평균 할증률	빈도수	평균할증률	
30% 이상	6	34.87%	0	-	
20% 이상 30% 미만	14	24.83%	2	24.70%	
10% 이상 20% 미만	2	13.36%	1	18.82%	
0% 이상 10% 미만	1	8.89%	5	2.54%	
0% 미만 (할인)	0	-	1	-10.90%	
계	24	27.64%	9	7.78%	

후속 공개매수의 경우 할증률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은 1개사는 계산에서 제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자진상폐 공개매수 문제 있다

최근주가만 따져 재미들에 불리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선 기업들은 공개매수가 산정 기준으로 최근 주가만을 제시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사들이 공모 이전 주가 대비 평균 28% 가량의 프리미엄을 적용해 공개매수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시장가격에만 의존한 산정방식은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는 장기 투자자들의 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진상장폐지 목적의 주식공개매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진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총 24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모두 34건의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8개사가 비상장사로 전환을 완료했다. 4개사는 주주들의 참여율 저조로 목표지분에 미달해 상장폐지가 불발됐고 나머지 2개사는 작년에 공개매수를 실시해 상장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24개사는 공개매수 가격 산정 시 공모일 이전 1개월간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최저 8.87%에서 최고 41.63%의 프리미엄을 붙였다.

평균 할증률은 27.64%로 집계됐다. 24개사 가운데 공개매수가 산정 근거로 최근 주가 외에 수익·자산가치 등 적정 기업가치 평가를 언급한 사례는 없었다.

상장폐지가 불발된 4개사의 경우 이처럼 시장가격에만 의존한 가격 산정방식이 문제가 됐다.

이들 4개사의 최초 공개매수 가격은 공모 한 달 전 평균주가 대비 20.40~26.36% 높은 수준으로 평균 할증률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당시 주가가 기업의 미래 성장성 등 실질 가치보다 저평가됐다고 본 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계열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 아트라스BX의 경우 2016년 자진상장폐지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사측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당 가치가 올라감에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반발해 자진상장폐지에 요건(회사와 최대주주 합산 95% 이상 지분 확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공개매수 가격을 놓고 회사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를 막기에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상장폐지를 저지하거나 공개매수 가격을 올린 사례로는 2012년 한라공조(현 한은시스템)와 2007년 한국전기초자 등이 있다.

한라공조는 공개매수 가격이 기업가치에 못 미친다고 본 국민연금의 불참으로 상장폐지가 불발됐고 한국전기초자는 ‘장하성펀드’로 불린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의 반대로 한차례 공개매수에 실패했다가 2010년 매수가를 올려 상장폐지를 완료했다. /연합뉴스

## 대림산업, 해외수주 급감... 첫 무급휴직 시행

### 플랜트 사업본부 직원 대상

대림산업이 해외 수주 급감으로 플랜트 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창사 후 첫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이날부터 플랜트 사업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작한다.

대림산업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플랜트 사업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동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 28일 오

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인 약 1700명 가운데 85% 가량인 1500명 정도가 무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신청자가 일정 인원을 넘은 만큼 이날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1개월이며, 일부 직원들은 무급휴직이 가능한 최대 2개월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이 창사 후 첫 무급휴직을 추진하는 까닭은 플랜트 사업 본부의 신규

수주가 급감해서다.

지난해 플랜트 부문의 신규 수주는 2781억원으로 전년(2조7549억 원)의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남아 있는 일감도 2016년 말 7조347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 8695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건의 대규모 플랜트 공사가 준공돼 유휴인력이 발생했는데 최대한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 우정사업본부 연금 ‘현금배달’ 서비스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5월부터 매월 우체국예금계좌로 지급받는 연금 등을 현금으로 배달해 주는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날짜를 지정하면 현금을 인출해 집배원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기 때문에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 서비스 대상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우체국예금계좌의 현금, 우체국연금 보험금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본인에 한해서만 배달해주며 배달지역은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이 안 되면 재배달 없이 고객계좌로 입금된다.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까지다.

강성주 본부장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향후 고객 호응도에 따라 최소 금액 하향, 타은행 확대 등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희 기자 csh9101@

### 여신금융협회

## 여신금융사 신입사원

### 역량·능력개발 교육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사 신입사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신입사원으로 갖춰야 할 역량 강화 및 기본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신금융사 신입사원 능력개발 교육’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금융업을 포함한 국내 외 금융산업 및 주요법규에 대한 학습을 통해 금융지식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최근 디지털금융 트렌드를 인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건축비 ↑

###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2.65% 상승

국토교통부는 1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날부터 2.65%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현재로서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건축비 상승률은 2016년 9월 1.67%에서 작년 3월 2.39%로 올랐다가 그해 9월 2.14%로 소폭 낮아졌으나 이번에 폭을 키웠다.

기본형 건축비가 이번에 오른 것은 철

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재료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